



東亞꿈나무 장학금 기탁 현황  
(2000년 3월 15일 현재)

Table with columns: 성명, 기탁명칭, 기탁금, 합계액.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onga Ilbo Dream Tree Scholarship.

# 21세기 인재양성 요람

## 올해부터 장학사업 본격화

### 장애학생-문예창작 지원

### 독자와의 약속 실천

“이 장학금을 동아일보 창간 80주년을 맞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신채장에 학생과 문예창작 진흥사업을 위해 써 주십시오.”

23년 전인 77년 4월 1일, 70대 초반의 한 노신사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를 찾았다. 노신사는 이동욱(李東旭)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만나 3500만 원 어치의 한천 주식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 노신사는 부산에서 개업의로 활동하던 고 인산 오창훈(仁山 吳昶軒)씨. 이동욱사장은 오씨로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 사연을 전해 듣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장학금은 정려장으로 고생하다 두 달 전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섯째 딸 수인(壽仁)이의 유언을 지

키기 위한 것입니다.”

광복 전 독학으로 의사자격증을 따낸 오씨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도립병원장까지 지낸 뒤 49년 부산으로 이사해 소아과 병원을 개업,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수인씨가 초등학교 6학년때 중이염 치료를 위해 맞은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청각이 마비됐던 것. 남달리 총명하고 쾌활하던 여섯째딸의 갑작스러운 불행은 단란했던 가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오씨 부부는 그 뒤 수인씨를 데리고 전국의 이름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효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수인씨는 고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할 정도로 총명했으며 아버지 오씨가 양쪽 대퇴골을 길어 끼우는 대수술을 받은 뒤에는 남마다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는 등 효성도 극진했다.

남다른 의지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간 수인씨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73년 어머니가 병을 얻어 세

상을 떠나면서부터. 명랑하던 수인씨는 그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77년 2월 10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수인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저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오씨는 사랑하는 딸의 뜻을 받들기 위해 동아일보사를 찾았던 것.

오씨는 그 뒤에도 동아꿈나무 재단에 장학금을 6차례나 더 기부했고 2000년 3월 현재 그가 맡긴 장학금은 20억 원으로 불어났다.

23년 동안 오씨와 수인씨의 소중한 뜻을 키워온 동아일보사와 동아꿈나무재단은 오씨의 소원대로 올해부터 이 장학금으로 신채장에 학생 지원과 문예창작 진흥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장간기념일인 4월 1일에는 부산 기장군 대정공원묘지에 있는 오씨의 묘역에 추념비를 봉정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東亞꿈나무재단 오늘까지

### 1971년 독지가 성금 '밀알'

### 203명 참여 44억으로 증식

오씨는 8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8차례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보냈고 그 뒤에는 오씨의 외아들 운봉(雲峰)씨가 500만원을 더 맡겨왔다. 오씨 부자가 기탁한 장학금은 현재 3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당시 동아일보에 오달꾼씨가 장학금을 보내는 사연이 소개되자 전국의 독지가로부터 성금 기탁이 줄을 이었다. 오광수(吳光洙)씨는 자신의 집을 판

돈 등으로 74년부터 77년까지 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보내오기도 했다.

독지가들의 장학금이 모아지자 동아일보는 85년 5월 재단법인 동아꿈나무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이 재단의 기본재산은 75년 동아일보사가 광고란임을 받을 때 국민이 모아준 성금 등 5억원과 권희중(權熙宗)씨가 회사인 토지 7400평(당시 감평가 23억원).

지금까지 동아꿈나무재단에는 10회 이상 장학금을 기탁한 독지가도 12명이나 되며 익명으로 장학금을 낸 사람도 9명이 있다.

이 가운데 김우철(金濤哲·58·서울 관악구 복지후원회장)씨는 90년부터 지금까지 94차례에 걸쳐 매달 장학금을 보내오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Table with columns: 성명, 기탁금, 합계액.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onga Ilbo Dream Tree Scholarship.

Table with columns: 성명, 기탁금, 합계액.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onga Ilbo Dream Tree Schola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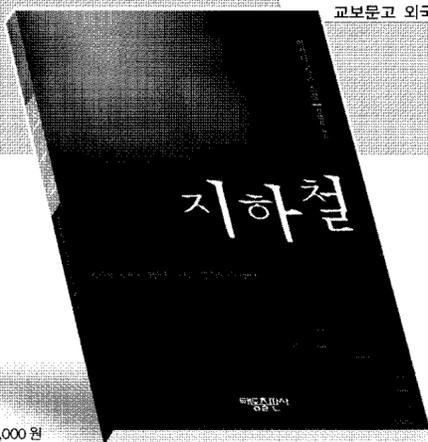
Table with columns: 성명, 기탁금, 합계액. Lists donors and amounts for the Donga Ilbo Dream Tree Scholarship.

가족을 위한 동화 같은 소설

# 지하철 속에서 매일마다 나는 희망을 연습한다

출간 1주일만에 베스트셀러 진입!

교보문고 외국소설 2위, 영풍문고 외국소설 2위



아사다 지로의 소설

# 지하철

「철도원」을 쓴 아사다 지로의 <요시가와 에이지 문학상> 신인상 수상작품

잃어버린,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가족'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오래된 가족사진첩을 펼쳐 보았을 때의 가슴 찡한 느낌. 가족과 밀과 인생에 지친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화해가 눈물겹다.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독후감

「지하철」에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그대로 그려려고 하는 작가의 순수한 의사가 담겨 있다. 그 의지 앞에 몸을 드러내면 어떤 인내심이라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독후감을 얻을 수 있다.

— 안도현 (시인)

— 허세 세우기 (소설가)